

머리말

본 통합연구 35호의 주제를 “생명복제에 관한 기독교적 반성”으로 잡은 것은 97년 ‘돌리’의 복제 이후 한동안 뜸했던 생명복제 연구결과 발표가 99년 전반기에 다시 대중매체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본 35호는 4개의 특집논문, 1개의 일반논문, 그리고 1개의 일반 서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 “생명복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본지의 편집위원이며 본 호의 편집을 위해 실제적인 수고를 감당해 주신 부산대학 약학대학의 김남득 교수의 글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생명복제의 기술 발전과정과 생명복제의 금지 혹은 규제법 제정에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과학, 종교, 사회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로 기구를 구성하고 생명복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급히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 “복제기술의 추세와 문제점”은 고신대학교 생명과학과 이병욱 교수의 글로, 이 논문에서는 생명체 복제의 역사와 방법, 핵이식법에 의한 인간복제의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동물복제 기술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들, 이 기술들이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 왜 인간복제 연구를 중단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기독교계가 견지해야 할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 “생명복제 기술이 질병 치료에 응용되어야만 하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과 의 이하백 교수의 글이다. 이 논문은 인간 생명복제가 질병치료에

응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위해성의 올바른 이해와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인간생명을 복제하지 않고서도 인간복제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그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제시하며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련 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공학안전윤리협회의 회>가 발족되어 “생명안전윤리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회, 윤리, 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한편 생명과학을 발전시키고 정당하고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네번째 논문, “생명복제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은 한동대학교 생물식품공학부의 현창기·도명술 교수의 글이다. 이 글은 인간복제에 대한 사람들의 우상화 현상에 대하여 그 원리를 분석하는 한편, 현대인들의 사고의 틀에 깊이 자리잡은 진보사상과 자연주의의 영향을 드러냄으로써 인간복제가 얼마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생명과학 연구의 일선에 서 계신 저자들이 직접 “생명현상을 생명공학의 능력으로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생명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생명의 기작을 변형하여 비정상적인 생명체를 만드는 하나의 생명체 변형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변형기술이 사람의 힘으로 인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에 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인상적이다. 저자들은 현재의 생명공학의 변태적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일반논문, “호스피스 간호중재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강은실 교수와 김미령 님의 글이다. 저자들은 호스피스 간호의 중요한 활동내용 중의 하나가 영적 간호이며, 이는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요구로서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요구, 용서에 대한 요구, 사랑에 대한 요구, 회

망에 대한 요구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영적 간호를 중심으로 하는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상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인적인 영적 간호가 암환자의 간호에도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본 호의 유일한 일반서평은 제이 홀맨이 엮은 책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참기쁜교회의 조덕영 목사께서 평한 글이다. 평자는 최신 의학 발전에 의해 생겨난 윤리의 문제를 크게 세 부분, 출생시의 윤리와 생활 중의 윤리와 임종시의 윤리로 나누어 기술한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본서의 의도, 한계점, 의미 등을 적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본 호를 통하여 생명복제가 지닌 문제점들이 더욱 소상히 밝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망된 그 구체적인 대안들도 일부 제시되어 앞으로의 논의의 귀한 출발점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호의 편집을 위해 실제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남득 편집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1999. 8. 6.

Trinity Western University 도서관 구석에서

전진우